그런가요 2호:
하이스쿨 스페셜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그런가요』 2호: 하이스쿨 스페셜

만든 사람들: 도유림(푸요), 주요한(아미),
오다향(야니), 박정혜(정혜),
게이코 세이, 성지윤(찌루)

책임편집: 게이코 세이
진행·편집: 강유미
번역: 곽재은(영한번역 「고등학생 여러분에게」,
「출판물의 목적과 구성」,
「버클리고등학생들이…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연식(일한번역 「장면11: 어느 날」)
디자인: 장문정, 장승아

도움주신 분들: 길예경, 김현아(하자센터),
김형빈(학산문화사), 마정연,
무라노 케이타(슈에이샤), 박해천,
아메야 노리미즈, 이승효,
이치무라 사치오, 임선영(한겨레출판),
정다이(휴머니스트 출판그룹),
카오솟 영문판, 파릿 치와락

발행일: 2016년 5월
발행인: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김홍희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T. 02 2124 8800
sema@seoul.go.kr

mediacityseoul.kr
sema.seoul.go.kr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6 Seoul Museum of Art.
All rights reserved.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예술감독 백지숙, 전시명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2016. 9. 1–11. 20)은 2016년
4월부터 비엔날레 개막 전까지 총 4번에 걸쳐
비정기 출판물 『그런가요』를 발간합니다.
이 일련의 출판물은 비엔날레와 동시대 미술
언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각기 성격과 시각을
달리하는 다양한 필자들이 발굴해내는 이슈들을
담아냅니다. 『그런가요』를 위해서 길예경(한국, 편집
및 번역자), 게이코 세이(태국/미얀마/일본, 저자 및
큐레이터), 치무렝가(남아프리카공화국, 출판 및
전시 프로젝트팀), 미겔 로페즈(코스타리카/페루,
저자 및 큐레이터)가 각 호의 책임편집을 맡았으며,
장문정(미국/한국, 그래픽 디자이너)이 아트 디렉터 및
디자인 어드바이저로서 협업합니다.

고등학생 여러분에게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언제나 그렇듯 공부 중일지 모릅니다. 보통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니까요. 공부란 여러분 나이에 원래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에서부터 선생님에 이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공부 말고도 하고 싶은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 확신해요.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스타나 스포츠 경기도 보고, SNS로 친구와 수다도 떨고, 게임도 하고, 아니면 어디 아무데나 친구들과 놀러 가고도 싶겠죠. 공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부를 해야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다들 믿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또한 저는 성공뿐만 아니라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출판물은 예술 작업의 일환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예술에 관심이 있다는 뜻도 되지요. 그래서 공부와 성공에 대해서도 예술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에서는 사회적 규범이나 기준, 관습이 어떤 대단한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예술가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규범이나 기준,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부수고 그 너머로 나아가 사물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데 전문적인 사람들이고, 또 바로 그런 이유에서 실패, 다시 말해 규범과 기준에 맞추지 못한 실패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공보다는 실패와 실수가 인간을 훨씬 더 깊게 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통찰이야말로 우리 자신, 곧 인류를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고등학교 시절의 저는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또한, 이 시기가 고통스러웠던 것도 기억납니다.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고등학생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의무교육 기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역시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여러 선택들을 자유로이 해보고 그것을 책임지는 나이지만, 사회는 여전히 여러분을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많은 측면들(패션과 다닐 수 있는 장소에서부터 술, 마약, 섹스에 이르기까지)을 제한하며 통제하기를 계속하죠. 이 시기는 또한 여러분이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무수한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여러분은 이 세계에 처음이고, 미숙하고, 신참자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 중 상당수는 여러분의 내면에 생채기를 남기고, 때로는 아프게 찌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꿈, 어쩌면 큰 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을지도 모르고, 세상을 구원하거나 이끌어나가고 싶을지도 모르죠. 또한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맞설 상대가 없다고 느낄 겁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때와 장소를 잘못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머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물러나 있겠다고 다짐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또는

만약 삶을 스스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예요. 아직 실질적인 아무 것도 책임 지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아픔이 새로운 스펙터클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한번이라도 실감해본 적 있나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힘드니까 여러분은 얼른 지나가 버리길 바라죠. 대부분 우리는 이 시기가 삶에 큰 족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언뜻 하찮아 보이는 인생의 이 시기가 사업적으로는 수백만 달러를 낳을 뿐 아니라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을 주며 무수한 창작물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망가와 아니메 작품들을 한 번 보죠.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거나 여러분 같은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의 수요는 그야말로 월등하죠. 예를 들어, mangare.net 사이트에서 베스트 50위 안에 드는 작품은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에서 『데스노트』에 이르기까지 거의 절반이 이 '고등학교 이야기' 범주에 해당합니다.[1] 태국의 한 영화인에게 망가와 아니메는 고등학교 이야기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망가와 아니메의 경우, 제작할 때 필요한 건 여고생과 총이 전부죠."라는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이 말은 1960년대의 전설적인 영화감독 장 뤽 고다르가 했던 유명한 말 "영화를 찍을 때 필요한 건 여자와 총이 전부다."를 인용한 겁니다. 이 스위스계 프랑스인 거장은 영화적 실험을 감행하고 영화의 관습을 깨뜨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렇지만 고다르의 이 말도 1910년대 현대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선구자였던 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영화 제작자 D.W. 그리피스의 말을 조금 응용한 것이에요. 그는 영화 팬이 원하는 건 여자와 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피스 감독은 대부분의 관객이 보기 원하는 스펙터클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구자였던 그리피스 감독의 생각과 말은 할리우드와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많은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아름다운 여배우, 전투, 싸움이 항상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한 할리우드가 전세계 상업 영화에 중대한 영향(우리는 이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부릅니다.)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영화 제작자들도 이 모델을 따릅니다. 망가와 아니메도 예외가 아니고, 소녀와 총을 다루는 제작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망가와 아니메가 할리우드를 비롯한 기타 서구 상업 영화와 차이가 있다면, 망가와 아니메에서는 여러분, 다시 말해 고등학생이 스펙터클의 주역을 맡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학교에서 이미 배웠을지 모르지만, 서구문화에는 나이 어린 주인공의 심리적, 문화적 성장과 발달을 다루는 '교양소설' 또는 '성장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장르는 꽤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고 잘 알려져 있지만, 한번도 주요 장르로 인식된 적은 없어요. 반면, 망가와 아니메에서는 여러분이 없으면 안됩니다. 배경과 줄거리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주연입니다. 범상치 않은 능력이나 범상치 않은 무기가 있어서 세계의 파멸을 막기 위해 싸우기로 결단했든(〈신세기 에반게리온〉, 〈혁명기 발브레이브〉, 〈샤를로트〉, 〈블리치〉 등), 사회의 특정 악이나 악한 시스템을 폭로하든(〈케이〉, 〈길티 크라운〉, 〈자살클럽〉 등), 아니면 사회에 관한 무언가 가령 희망이나 절망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SF 망가와 아니메 작품 〈코펠리온〉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서 도시 전체가 30년간 봉쇄되어 왔던 2046년 시점의 도쿄가 등장합니다. 도쿄는 유령 도시처럼 그려지지만, 그래도 다양한 이유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자위대는 이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방사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세 명의 '인물'을 파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구조 임무를 띠고 파견된 사람들은 교복 차림의 여고생들입니다.… 그리고 줄거리는 "아니메는 일본 여고생만 있으면 세상에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려놓기 일쑤"라는 어느 외국인 블로거의 말을 마치 그대로 보여주듯 진행됩니다. 미국 만화의 주인공이 슈퍼맨, 슈퍼우먼에서 스파이더맨에 이르기까지 전부 성인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점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지요.

아, 여러분은 영웅이 아니라고요? 평범한 고등학생이 예술적 영감을 줍니다.

〈코펠리온〉의 여고생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도쿄에 남은 사람들을 구하느라 바빴다면, 베테랑 극작가이자 예술가인 아메야 노리미즈는 특수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들이 아니라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2011년 쓰나미, 지진, 원자력 재앙이 있은 후 일본 전역을 뒤덮은 슬픔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연달아 일본 땅을 덮친 이 재앙들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들의 가족, 집, 땅을 빼앗았으며, 후쿠시마 사람들은 지금도 임시 주거 시설에 삽니다. 아메야는 최근 연극 〈블루 타프〉에서 전체 배우를 후쿠시마 지역의 실제 고등학생들로 썼고, 이 흔치 않은 사건을 경험한 보통 학생들의 하루하루 삶을 조명했습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생명체 비슷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이 무섭기만 합니다. "나보다 약한 생명체면 나도 이길 수 있겠지만, 나보다 힘이 더 세면 공격 당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는 '그것'에게 말을 걸어볼 도리 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좀 더 나이가 많았다면 어떤 책임감을 느껴 '그것'을 구하려 들거나, '그것'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이 단순히 무섭다고 순순히 인정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렸다면 아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조차 못했을 테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놓인 여러분의 반응은 좀더 복잡할 것이고, 연극 전체에 걸쳐 이런 사례와 딜레마들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주인공이 고등학생일 수밖에 없겠다는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기도 하고, 왜 아메야 같은 예술가들이 고등학생들의 마음과 몸에 매료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또 다른 장면에서 학생들은 방수포 위에서 지내는 자신들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푸른색 방수포는 그 운명의 날에 보았던 바다와 푸른 하늘뿐만 아니라 임시 보호소까지도 포함하여, 이 응급 상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징하죠.

"학생은 형광등을 켰다,"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교복을 벗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기타를 쳤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학생들이 하는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살든 누구나 할만한 행동이에요.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학생은 이 모든 행동을 방수포 위에서 한다는 것뿐입니다. 이 장면은 제게 너무 강렬하게 다가와서, 무거운 바윗돌 하나가

저를 땅바닥까지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저 학생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거나 조금 더 어린 누군가의 일상이었다면, 내게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가령, 슬픔 같은 감정 말이죠. 아마도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학창 시절에 했던 일들을 전부 기억하고, 그 때 그 행동들을 완전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했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한 관객은 한 남학생이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라고 외치면서 꽤 오래 달리는 동작을 하지만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장면을 특별히 언급했는데, 그 분의 심정도 저와 마찬가지였지 싶습니다. 연극을 본 다음 그 분은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 "(그 학생은 소리를 질렀다.) 너무도 거대한, 게다가 자신은 속수무책일 뿐인 그 상황을 맞닥뜨리기 위해서였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공급하는 전기의 혜택을 오랫동안 누려온 도쿄 시민인 나로서는, 그 어린 학생의 절규가 몸 속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다."[2]

학생들은 반복해서 숫자를 세기도 합니다. 이 숫자 세기는 (점호를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의자 뺏기 놀이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데, 혹시 누락된 사람이라도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것 같지요. 이런 머릿수 세기가 거듭 등장하면서 보는 이들은 자연스레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아이들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고, 또 그럴수록 마음은 더 참담하게 가라앉습니다.

한 학생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 연락처 지워줄래?" "그냥 나는 잊어줘, 안녕." 관객들은 그 사고 때문에 사라진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떠올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바로 인생의 시간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어떤 기록, 기억, 또는 간단히 말해 이 세계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이걸 실감하면 섬뜩하고, 소름 돋고, 충격을 받지만, 동시에 이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이기도 해요.

한 평범한 학생의 이런 복잡한 마음 상태는 수많은 문화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블루 타프〉의 작가 아메야는 이전 작품들에서 고교생들과 함께 작업했었고, 또 다른 작가 히라타 오리자는 다른 그룹보다는 유독 고등학생들과 자주 연극 워크숍을 가져왔어요. 영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자신의 영화에 항상 어린 신인 배우들을 등용하고 영화 워크숍을 열어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기를 즐깁니다. 한국에서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 〈사마리아〉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자본주의, 종교성, 가족 관계 등과 같은 삶의 주요 측면들을 성찰하기 위해 여고생을 모티브로 삼아 아주 독창적인 방식의 접근을 했지요. 김기덕 감독은 특히 성인 남성들이 여고생에게 두툼한 돈다발을 기꺼이 건네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어째서 주류 산업이 그토록 여고생을 원하는지 짐작하게 할만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여러분은 호르몬과 지급유예기간을 상징합니다.

한 성과학자가 일전에 제게 이런 이야길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고등학생 여러분이 학생 신분으로 지내는 그 때가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라고요. 호르몬 활동이 활발해지고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측면은 이성을

중시하는 데카르트식 전통 아래 있는 서구에서는 특히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아주 극소량만으로도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르몬은, 로고스와 관념에서 출발하여 사이버네틱스에 기반한 심신통합까지 곧바로 달려가는 서구 철학사에서 한 번도 이렇다 할 자리를 차지해본 적이 없어요. 데카르트식 세계관은 너무 오랫동안 호르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지식을 무시해왔거나 억압해왔습니다. 호르몬이 혹시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 행동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해서였죠.

문학, 미술, 연극, 영화를 막론하고 문화 영역에서도 호르몬에 관련된 무언가를 묘사하기란 쉽지 않답니다. 예외가 있다면,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고 그 경험을 창조적 에너지와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는 성소수자(LGBT) 문화 활동가들의 작품 정도가 될까요. 가령, 호르몬 변화를 영화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데 성공한 체코 영화 〈페어 플레이〉(2014)는 정부 주도로 이뤄진 금지 약물 투여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토론을 이끌어냅니다. 영화 중에는 구 공산권 국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여자 운동 선수가 가슴과 다리에 난 털을 미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선수는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속 투약 당해왔고, 그 결과로 몸 곳곳에 자라나기 시작한 체모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국가가 비밀리에 선수에게 금지 약물을 주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관객의 눈에는, 이 적은 양의 체모가 국가의 범죄, 즉 스포츠 정신뿐 아니라 선수 개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불법 행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또한 국가의 힘과 냉전 체제가 인간의 몸에 각인하는 함의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래요, 아주 소량입니다. 그 적은 양이 거대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것이 사람을 바꾸고, 사물을 바꾸고, 폭탄처럼 폭발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어떤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얼마 전 태국 군부 독재자의 눈 앞에서 배너를 들고 항의 시위를 한 것 때문에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태국의 한 고등학생 활동가가 있지요. 호기심 왕성하고 학구적인 학생이에요. 역사책 읽기를 즐기고, 태국 각 지역의 역사에 대해 글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미 전문적인 학자의 수준에 올랐는지 이 학생이 쓴 글들은 대학 학술지에도 실리기 시작했더군요. 저는 이 학생에게 정치적 행동주의 노선을 택하게 됐을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책이나 저명인사가 아니라 〈호르몬〉이라는 지역 TV 드라마를 꼽더군요. 선생님, 부모님, 사회규범이 지시한 명령이 아니라 호르몬이라는 자연적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고등학생들을 다룬 이 드라마는 케이블 TV와 인터넷으로 방영된 이후 일종의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호르몬〉은 보수적인 태국 미디어에서는 최초로 이성적이고 외적인 정보나 가르침보다는 신체 내부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사람들을 고무했습니다. 여기에 SNS상에 넘쳐나는 관련 언급들, 피드백, 토론까지 가세하여, 〈호르몬〉은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자유와 해방의 느낌을 선사했답니다. 이 물결은 청소년들의 삶의 모든 부분, 심지어 정치적 참여 의식처럼 보이는 영역에까지도 광범위한 파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군부가 학교의 교과 과정과 교과서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한 군부 독재 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르몬' 세대 태국 고등학생들은 일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에요.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 볼 때, 호르몬 활동이 왕성한 이 시기는 '지급유예기간'의 시기로도

불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될 때까지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일시적으로 유예된다는 뜻이지요. 이 기간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탐색하며 시행착오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특히 요즘처럼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 기간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무엇이든 책임지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시대엔 부정적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자면, 학생들에게 오로지 정보와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암기하는 것만 권장하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해볼 기회를 주지 않는 교육,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품을 만한 모든 심리적 기대를 져버리고 오로지 경쟁적 승리만 장려하는 동아시아 교육 체제 역시 잘못된 것 아닐까요? 이 점을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망가와 아니메 작품이 왜 그토록 많은 지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고등학생들이 날아다니고, 골짜기와 강을 뛰어넘고, 괴물과 악당을 물리치며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그 속으로 뛰어 드는) 바로 그것을 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회가 고등학생들의 자유와 여가 시간을 그토록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지급유예기간을 벗어나기 두려워하는 청소년을 양산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지급유예기간을 벗어난다는 것이 주로 국가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특히 이런 현대 사회에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재빨리 그 기간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긴 할까요? 또한 어찌되었든, 지급유예기간 상태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몬 폭탄

2005년 10월, 마루젠 서점 교토 지점이 폐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서점을 찾아와 책을 쌓고 그 위에 레몬 하나를 올려놓고 가는 일이 이어지면서, 기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젠 서점은 가지이 모토지로의 단편소설 「레몬」(1925)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3] 주인공(작가)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응어리" 때문에 항상 심장이 짓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가 무얼까 정체를 궁금해하며 교토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곳이 교토가 아닌 어디 다른 곳이라고 꿈꾸면서요. 그러다가 과일가게에서 예쁘고 노란 레몬 한 개를 발견합니다. 다시 어슬렁거리며 걷다가 마루젠 서점에 들어가 명화집들이 쌓여있는 위에 그 레몬을 놓습니다. 소설의 결론 부분에서 주인공은 자기가 그 서점을 몽땅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을 두고 나왔다고 상상하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소설이 인기가 높아지고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일부러 이 서점을 찾아 책 위에 레몬을 올려놓는 사람도 늘어났죠. 그리고 이 서점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리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레몬을 놓고 가게 되었고요.[4]

이 소설과 특히 "불길한 응어리"라는 그 모티브는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래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불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의 불안, 또는 청춘의 일반적인 우울에 대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자가 당시 심하게 아팠고 돈벌이도 없었으므로 빚이 늘어만 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저자 자신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정체가 무엇이든 그 응어리 때문에 주인공은 상상 속에서 건물을 날려버리는 테러리스트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소설가 가지이는 철저한 패배자였습니다. 서른 한 살에 숨을 거두기까지 그는 어머니가 보내오는 돈에 의존했고, 입학 시험에

몇 번이나 낙방했고, 결혼도 못했고, 구체적인 직업도 없었고, 술과 여자를 비롯한 사치스러운 것에 탐닉하기를 좋아했어요. 가지이 역시 자신의 이런 삶이 성실한 어머니를 힘들게 했을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 사실이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울었어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둘 때까지 가지이는 '지급유예기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책감 때문에 또는 사회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그는 테러리스트가 되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구제불능도 이런 구제불능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교양 소설 주인공은 대개 성인으로 자라갑니다. 하지만 가지이의 경우엔 성장한 것은 그의 감성뿐이며, 전통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아예 성장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성에 공감해서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서점에 레몬을 두고 갔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작가와 비평가들이 그 소설을 현대 일본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을까요?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그것이 미성숙(음주, 빚,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으름, 건강을 무시한 데서 온 병 등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신의 약함 때문에 이런 나쁜 습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을 어렸을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저자는 현실로부터 도망치기를 꿈꾸지만 이것은 허구이고, 비현실적이며,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청춘의 본질이다. 학생들은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관념적이고, 상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대체로 말해 그들은 미성숙하며, 또 그것이 청춘의 본질이다."[5]

코가 아키라가 자신의 책 『소설의 얼굴』에서 쓴 글에 의하면, 「레몬」은 『소설의 얼굴』이 출판된 2014년 시점을 기준으로 13종의 고등학교 일본 문학 교과서에 실렸습니다.[6]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이 소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코가는 「레몬」의 독후감을 써서 상을 받은 한 고등학생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이 소설을 읽을 때마다 나도 희망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주인공 가지이가 살고 싶어했을 것 같다.…이 소설에서 내가 느낀 것들은, 지겨운 매일매일과 내 자신을 바꾸고 싶어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7]

이 소설의 성공을 견인했던 핵심은 주요 소재로 레몬을 선택했다는 데 있어요. 좋은 향, 선명한 노란색, 그리고 신선하면서도 신 맛. 청춘의 상징이자 거대한 아메리칸 자본주의의 상징도 됩니다. 게다가 서점에 놓아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가 없죠. 딱 봐도 무기가 분명한 물체였다면 여러분은 십중팔구 체포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레몬이라면? 여러분에게 시선이 쏠릴 테죠. 마루젠 서점은 책 위에 올려놓은 레몬을 발견하면 보통 '분실물' 취급을 합니다만, 여러분을 뒤따라 오던 소년소녀가 여러분에게 그 레몬을 건네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계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 정도로 취급할지도 모르고요. 결과는 무엇이든 (달콤하든, 시큼하든, 씁쓸하든)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 없습니다.

키스 키스 뱅 뱅과 레몬 폭탄

미국의 영화 평론가 폴린 카엘은 이탈리아의 한 영화 포스터에서 "키스 키스 뱅 뱅"이라는 문구를 발견한 뒤 자신의 두 번째 평론집의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카엘에 따르면 이 문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로 영화의 원초적 매력을 표현"한 문구입니다.[8] 하지만 이것을 책 제목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영화가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카엘의 희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요. 실험을 해야 마땅할 시기에 실험이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망가와 아니메는

고등학생들의 욕망을 반영한 온갖 판타지와 상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펙터클이 되었죠. 잠재적으로 여러분은 위력적인 호르몬 폭탄, 레몬 폭탄, 그러니까 문화적, 예술적, 또는 정치적 폭발력이 있는 폭탄입니다. 캐나다의 예술가이자 시인 알렉시스 오하라는 그녀의 시 「십대」에서 그 잠재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 나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싶다는 거 알아
> 자기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달콤하게 젖을 때,
> 하지만 그만 둬, 난 아직 어리거든
> 그냥 좀, 할 일이 아직 있어
> 복잡한 거 싫어, 자기
> 좀 즐기다가, 자기야, 우리가 됐다 싶으면,
> 그 때 그냥 하는 거야
> 좋지?[9]

화자가 "우리가 됐다 싶으면"이라고 말할 때 무얼 뜻하는 건지, 우리도 궁금합니다. 어쩌면 화자 자신도 그냥 아직,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요.

저는 고등학생 활동가들과 대화를 할 때면 그 위 세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항상 느낍니다. 심지어 대학생 활동가들, 다시 말해 거의 모든 곳의 시위와 혁명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그 집단과 비교해봐도, 고등학생 활동가들은 행동해야 할 상황에 던져졌을 때 "일단 저지른 다음 어떻게 될지 보자"는 태도가 확연해서 놀라게 되곤 합니다. 어떤 행운 때문에 그리고 막강한 지급유예기간 덕분에, 여러분은 실험을 해나가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은 대학생 활동가들처럼 자신의 행동을 이론화할 필요도 없고, 이데올로기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조차 없고요. 여러분은 일단 행동부터 먼저 하고, 호르몬 탓으로 돌리면 됩니다. "우리가 됐다 싶으면, 그 때 그냥 하는 거야. 좋지?"

철학적 금광

인생에서 여러분의 시기를 철학의 시각에서 보면 금광입니다. 미래의 두뇌들이 개발되고 있는 정말로 결정적인 시기일 뿐 아니라, 잘만 살펴본다면 한국인 철학자이자 와세다 대학교 교수인 다케다 세이지(재일교포 2세, 강수차라는 한국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의 표현처럼 이미 오래 전에 시효가 끝나버린 서구의 철학적 발전이 직면한 교착 상태를 뚫고 나갈 돌파구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 영역으로 입문하기까지의 다케다 교수의 여정은 다른 많은 철학자들이 그랬듯 청춘의 현상, 다시 말해 비통함, 상실감, 좌절을 안겨주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시작됐습니다. 문학 평론가이며 존경받는 교수인 다케다의 말에 의하면, 깊은 철학적 사유에 푹 빠졌다가 세상에 관한 좀 더 선명한 그림 하나를 건져 올리는 데 성공한 사람은 삶에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큰 상실이나 좌절을 경험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 되면, 여러분은 대개 어느 정도 부모님이나 학교, 친구 등으로부터 전해 받았거나 영향 받은 세계관을 하나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만족스럽게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케다 교수가 "개인 세계관의 첫 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쌓이면서 여러분 눈 앞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 출현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는 이것을 가리켜 "개인 세계관의 두 번째 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번째 장은 여러분에게 상당한 위력을 행사합니다. 지금껏 알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느낌을 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리'와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흥분하고, 사랑에 빠져 사랑에 사로잡히듯 그것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나 '이상'을

자신이 성취할 수 없다거나, 성취 불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실감과 좌절에 빠집니다. 아마 여러분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청소년 시절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상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종교에 기반한 것이든, 세상을 바꾸기 위한 마르크시즘에 기반한 것이든 다를 바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힘쓰고 싶다는 의지를 굳힌 청소년은 스스로를 대의에 던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이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고민합니다. 가장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하나인 헤겔은 이것을 "불행한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무너진 세상은 자기복원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으며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세계가 철저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민감하고 의식적인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그리고 이후에 할 생각들의 본질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는 미래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자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서구 철학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실존주의입니다. '자아' 그리고 삶에 대한 자아의 책임에 대해 사유하는 철학이지요. 또 다른 철학의 거장 임마누엘 칸트에 따르면, 근대인은 다른 권위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이성적 힘을 이용하여 각자의 '도덕'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케다 박사는 한 인간이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만의 '자기 법칙'의 형태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나이라면, 대부분 '좋아하는 것'이나 취미가 같기 때문에 친구가 되지요. "이 음식 좋아해?" "나도!" "그 영화 좋아해?" "응, 좋아해!" 하는 식으로요. 다케다 교수는 이것을 '비평적'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오로지 '좋고 싫음'만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유사비평적 교류를 가리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가령 대학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사람을 사귀는 이유에 좋고 싫음의 교환까지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여러분의 '좋음'은 비평적 교류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해갈수록, 여러분은 상대방의 '좋음' 또는 '견해'와 '생각'에 대해서까지도 관대해지게 되지요. 여러분의 '자기 법칙'을 사회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헤겔에 의하면 인간의 욕망은 자기 가치의 욕망이고, 그것은 가치 체계이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기 법칙'과 그에 대한 인식이 타인의 인정을 얻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각자의 욕망,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욕망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아'의 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 발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다른 누군가의 욕망과 충돌하며, 그 충돌은 온갖 종류의 역설을 탄생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역설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좌절하지요. 여러분의 삶과 정신은 철학의 문제 그리고 시대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나이에 '자아'와 '자기 법칙'을 개발하는 과정을 철저히 탐구하는 것은 현대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잘 발전시킬까를 고민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같은 현대 서구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특히 문화의 융성과 개인의 번영 사이의 상호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저는 이것을 '공부'라고 부릅니다.) 가령 '의지의 긍정'과 같은 사유를 발전시킬 때, 그것이 문화를 만들거나 문화로 발전합니다. 저는 이 부분, 즉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어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동적으로 선생님과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암기하고 반복하는 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인 여러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문화가 되면 여러분은 보편적 존재,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성공'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전시팀으로부터 비엔날레 출판물 편집진의 일원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할 것이며, 또 문화라 불리는 그 영구한 어떤 것이 될 아이디어 역시 많이 내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감을 예술가들에게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술과 문화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말하고 교류하는 활동입니다. 철학이 사람들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동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는 다케다 교수 역시 철학을 단순히 듣고 읽는 것에서 그 원래 형태인 포럼과 토론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는 토론이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철학, 예술, 문화의 분야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셨을 거에요. 핵심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일반 대중과 만나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출판물이 그런 기회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이코 세이 드림

1. 나머지 절반은 중세 시대 등이 배경으로 등장하지만, 이 역시 주인공은 현대의 고교생만 아닐 뿐 대부분 십대인 것은 동일합니다.
2. 무시케, 「연극 문화 현장: 도쿄페스티벌 2015, 아메야 노리미즈, 〈블루 타프〉」, http://d.hatena.ne.jp/mousike/20160127
3. 도널드 킨, 『Dawn to the West: Japanese Literature in the Modern Era, Fiction』,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 출판, 1998 참고.
4. 마루젠은 '레몬' 캠페인 덕택에 2015년 매장 곳곳에 레몬이 담긴 바구니를 가져다 놓은 교토 지점을 다시 열었다. 또한 이 전설적인 서점은 가지이의 책 『레몬』을 구입하는 독자에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5. 사기 다다오, 「Lemon」, 『National Literature: Interpretation and Appreciation』, 64권 6호, 1999.
6. 코가 아키라, 『Face of Novel』, 가고시마: 남방신사, 2004.
7. 위의 책.
8. 폴린 카엘, 『Kiss Kiss, Bang Bang』, 보스톤: 리틀 브라운 앤드 컴퍼니, 1968.
9. 알렉시스 오하라, 『(more than) Filthy Lies』, 몬트리올: 스파게티 댄스, 2001.

출판물의 목적과 구성

우리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의 스태프와 함께 한국 고등학생 다섯 명을 초청하여, 『그런가요』 2호로 제작될 '교과서'의 공동 편집자이자 토론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펼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사전에 골라두었고, 이것들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토론했다. 이 토론의 결과물은 소형 '교과서'처럼 엮어졌으며, 다시 이 교과서는 일반 대중과 이 출판물의 독자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대화 상대자들에게 제공되는 토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출판물을 교과서 형태로 만들어야겠다는 발상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나라이자 군부독재 치하에 있는 태국뿐 아니라 여기 한국에서도 교과서와 교과과정에 대한 정부의 수정주의적 개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고등학생 시절, 절대 건드려서는 안될 듯한 아우라에 둘러싸인 듯한 학교 교과서를 보며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학생들이 교과서란 절대불가침의 어떤 것이 아님을 깨닫고, 체감하길 바란다. 교과서 역시 공격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무엇이며, 심지어 학생 자신의 손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서울에서 2016년 2월 일주일에 걸쳐 다섯 명의 학생과 함께 하는 활동이 시작되었다.

다섯 명의 학생과 함께 한 일주일

학생들은 나를 반갑게 인사하며 맞아주었다. 친절한 소녀 야니는 동물을 사랑해서 나중에 동물소통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 느긋한 성격의 푸요는 먹는 걸 좋아하고, 직업이나 그 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법이 없다. 찌루는 활기찬 소녀로 금잔화처럼 표정이 밝다. 상냥한 소년 아미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얼마 전 미국에서 귀국했고 한국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런가 하면 정혜는 꼿꼿이 정면을 보고 앉아 사회의 문제점과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곤 했다.

내가 계획했던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교과서' 용으로 내가 사전 선택한 다섯 편의 자료를 놓고 토론을 벌인 다음, 이어서 2차 최종 '교과서'를 위한 자료를 학생 각자가 제안했다.

***

1차 '교과서'

1차 '교과서'를 위한 자료 다섯 편

자료 하나

일본의 한 지역 철도 서비스에 대한 기사. 통학하는 고등학생 한 명을 위해 당국은 열차 운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북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역 철도의 승객수도 타격을 입었고, 적자 운영이 이어지던 끝에 마침내 당국은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학생 한 명이 이 열차로 통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운행을 계속하게 되었다.[1] 나는 이 이야기, 그리고 고등학생 한 명과 열차의 실루엣, 작은 시골역, 텅 빈 한 량 열차 등이 찍힌 사진들을 접하면, 내가 그랬듯 수많은 상상을 하게 될 것이라 여겨 교과서용 자료로 선택했다. 가령, 이 학생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으며, 혼자 기차를 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이 기차역의 공기는 어떨지 등이 궁금해지지 않을까. 나아가 이 사건을 둘러싼 좀더 폭 넓은 사회적 측면들, 예컨대 청소년들이 뒤쳐지고, 인구가 줄고, 공공 서비스가 점점 희박해지는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았다.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 학생에게는 자유가 없다.

• 이것은 가장 효율적인 교통 수단이 아니다. 게다가 이 학생 시각에서 볼 때, 내가 그 애 입장이라면 처음엔 그분들 노력에 감사하겠지만, 방과후 생활에 전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불편하단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 아예 이 학생이 마을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어떨까? 그 학생은 자유도 없을뿐더러 이젠 미디어까지 사방에서 쫓아다닌다…가엾다.

• 이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졌다! 기관사 아저씨가 이 학생을 사랑하게 되는 거다.

• 내가 이 학생이라면 고마울 것 같다. 나를 위해 해주는 일 아닌가. 우리한테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어쨌든 열차가 있으니까 이 얘는 집, 자기한테 중요한 집으로 갈 수 있다. 기차는 이 학생한테 중요한 두 장소인 학교와 집을 연결해준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은 맞지만, 자유란 것도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 나라면 학교 가는 것도 그만 뒀을 것이다. 민폐를 끼치고 싶진 않다.

• 나한테 학교는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학교는 계속 다닐 것이다.

•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학생도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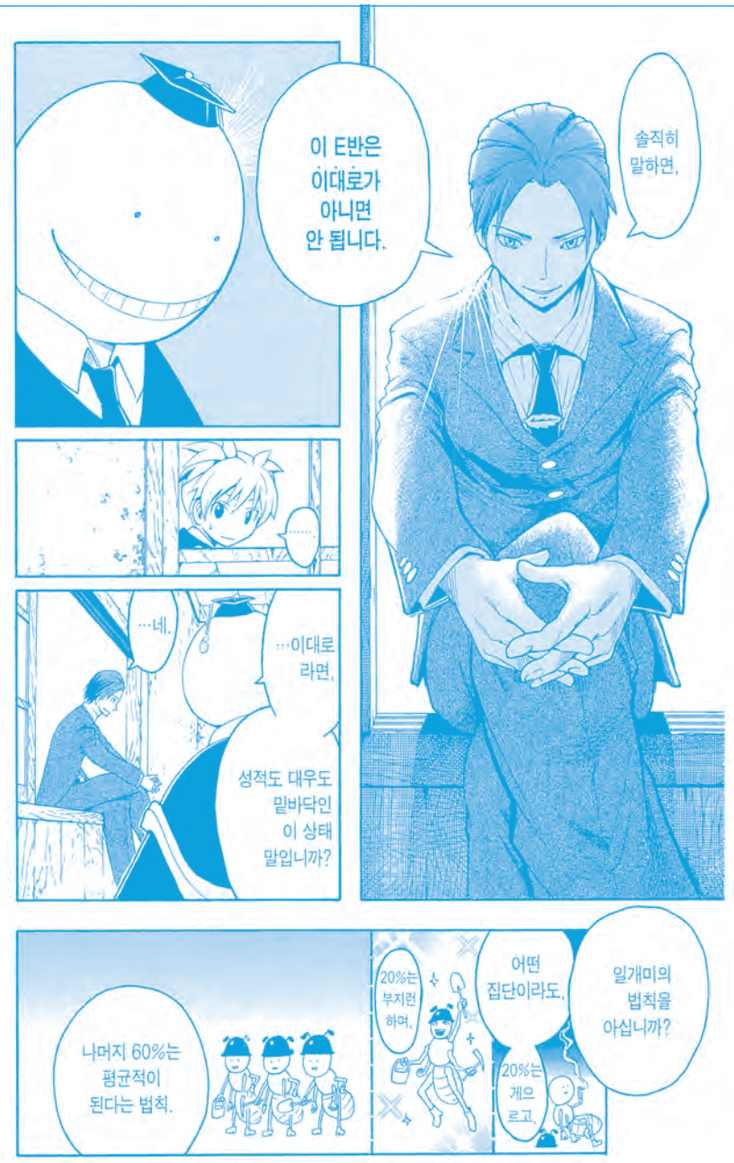
1. 학생의 졸업과 함께 이 역(규 시라타키 역)은 얼마 전 2016년 3월 25일, 69년이라는 긴 역사를 뒤로 하고 공식 폐쇄되었다.

자료 둘

망가『암살교실』

사실 고등학생이라는 주제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망가와 아니메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최소한 망가나 아니메 작품 한 점은 자료에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었다.『암살교실』은 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열등생들만 모아 꾸린 'E 학급'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인간이 아니라 문어 괴물인 이 학교 신임교사를 암살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암살에는 높은 포상금이 걸려있다. 문어 괴물 교사는 이미 달도 파괴해버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암살에 실패하면 지구도 파괴될 것이므로, 정부는 이 교사를 암살하는 사람에게 십억 엔을 주기로 한다. 학생들 역시 동기가 분명하다. 'E 학급' 학생들은 어차피 바닥 중의 바닥이므로 더 나은 고등학교-대학-직장이라는 과정을 따라가봐야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고, 따라서 십억 엔만 손에 쥔다면

마츠이 유세이 지음, 서현아 옮김,『암살교실 2』, 서울: 학산문화사, 2013, 100-104쪽.
ANSATSU KYOSHITSU © 2012 by Yusei Matsui/SHUEISHA Inc.



장래에 대한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정부는 학생들이 문어 괴물 교사를 암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전문 암살자들과 교관들을 파견했는데,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전문 암살자들로부터 그 이상의 것(범상한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비범한 현실들)을 배우고 자신만의 기술과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사회에 대한 더 깊은 통찰과 자신감까지 얻는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수백 편의 망가 중에서『암살교실』을 고른 이유는 이 작품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판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점도 있었지만, 매우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플롯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중국, 일본처럼 극도로 경쟁적인 교육제도를 택한 아시아국가 학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 안에서는 개별 학생의 기술, 재능, 잠재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숫자와 통계만이 점점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학교는 학생들을 서로
다른 '계급들'로 분류하고
여기에 덧붙여 사회적
계급과 지위를 생산하며,
학생들에게 분석하고,
토론하고, 실천할 기회를
주는 대신 오직 데이터만
암기하도록 만든다. 내가
이번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암살교실』에서 발췌한
부분은 교장선생이 어째서
'E 학급'이 밑바닥에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문어 괴물 교사는
막강한 힘도 가졌고
교장선생과 의견도 다르지만
피고용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장선생의
신발을 핥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대목이다.
학생들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E 학급'은 다른 반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다. 만약 내가 'E
학급'이었다면 우리가 무얼
했길래 놀림을 받는지

의아해하며 걱정했을 것
같다.

•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우린 서로 도와야 한다.
사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것이 싫다.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적인
사람들의 사회는 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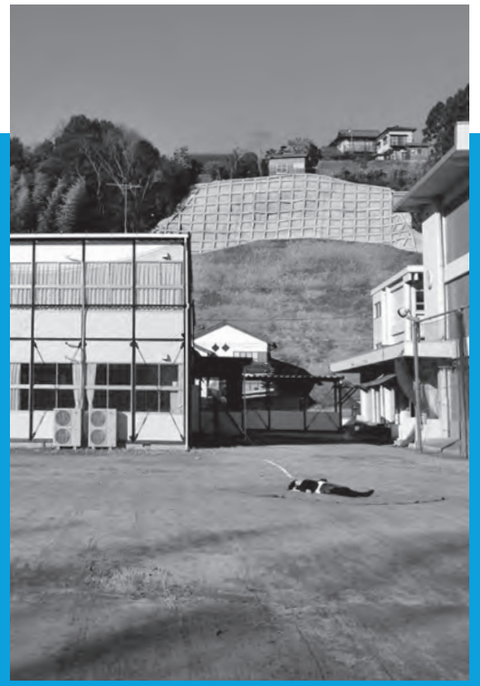
• 이 이야기는 심각한 교육
문제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 상황이 한국이랑 비슷한
거 같다. 여기서도 성적에
따라 학급을 분류한다.

***

마츠이 유세이 지음, 서현아 옮김, 『암살교실 2』, 서울: 학산문화사, 2013, 100-104쪽.
ANSATSU KYOSHITSU © 2012 by Yusei Matsui/SHUEISHA Inc.

마츠이 유세이 지음, 서현아 옮김, 『암살교실 2』, 서울: 학산문화사, 2013, 100-104쪽.
ANSATSU KYOSHITSU © 2012 by Yusei Matsui/SHUEISHA Inc.



자료 셋
연극 〈블루 타프〉

이 연극의 줄거리는 서문에서 소개한 바 있다. 다섯 명의 학생들과 나는 비디오로 이 연극의 몇몇 장면들을 함께 보았고, 마지막 장면은 교과서에 싣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토론은 연극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한 인간, 이 경우엔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범한 삶이 어떻게 연극이라는 세계로 옮겨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비디오를 본 학생들은 전문 배우가 아니라 자신들과 동일한 고등학생이 그런 멋진 연기를 해낸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

연극 초연 장면,
이와키 소고고등학교, 후쿠시마, 2013.
사진: 아메야 노리미즈

장면 11: 어느 날

이즈미가 나가고 나쓰키가
들어온다.

나쓰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 끝에서부터,
가위바위보.

모두 그 자리에서 차례대로
옆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한다.
나쓰키는 질문을 계속한다.
질문은 다음과 같지만,
그 자리에서 떠오른 질문을
더해도 된다.
모두 그 자리에서 "네" 하고
손을 들어 대답하면서
이번에도 떠들썩한 느낌으로
진행한다.

나쓰키: 여러분,
그럼 이번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그럼, 이번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그럼, 이와키 종합고교
2학년 학생!
남자!
여자!
열여섯 살인 사람!
그럼, 열일곱 살인 사람!
그럼,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
사람!
사귀는 사람이 없는 사람!
지금 부모님과 사는 사람!
지금, 어머니하고만 사는 사람!
지금, 아버지하고만 사는 사람!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사는 사람!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
음, 그럼 지금 이와키
시내에 사는 사람!
지진이 일어난 뒤에 이사한
사람!
그럼 집이,
10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
20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
30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
지금, 자기 집에 사는 사람!
지금, 가설주택에 사는 사람!
지금, 가설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대학에 진학할 생각인 사람!
취직할 생각인 사람!
졸업한 뒤에도 이와키에
남고 싶은 사람!
졸업하면 이와키를
떠나고 싶은 사람!
언젠가 일본을 떠나고 싶은
사람!
다시 태어난다면 한 번 더
인간이 되고 싶은 사람!

이 질문을 끝으로 나쓰키는
의자 한 개를 손으로 잡는다.

나쓰키: 그럼 의자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 떠들면서 의자를 9개,
한가운데 모으고,
의자 주위를 껑충거리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삑! 하고 휘슬을 분다.
10명, 의자로 달려든다.
누군가는 의자에 앉지 못한다.
그게 누군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매번, 앉지 못한 한 사람은
의자 한 개를 빼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는 거기서
놀이를 바라본다.
1명씩 줄면서 게임이 계속되고
이윽고 마지막으로 남은 2명이
마지막 의자의 주위를 돈다.
마지막 휘슬 소리가 난다.
게임은 여기서 갑자기 중단된다.
모두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난다.
시가타쓰와 후미야 두 사람만이
멍하니 의자 옆에 남아 있다.
잠깐 뒤에.
후미야, 일어서서 혼자서
댄스 연습을 시작한다.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혼잣말을 한다.
소리가 들려도 되고 들리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없는 누군가를 향해,
그 춤의 안무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후미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몸을 틀고….
그러고는 힘을 잔뜩 줘서는
거기서 바닥을
쿵 하고 차는 거야, 쿵….
하고는 몸을 비스듬하게….

그것은 그가 생각한 춤의
안무이지만,
그의 집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갔던,
그때의 묘사로 점차 바뀌어간다.
그는 그때의 일을 가능한 한
극명하게 떠올리면서,
여기서, 춤추려 한다.
시가타쓰, 후미야가 차분하게
계속하는 곁에서,
의자놀이에 쓰였던 의자
모두를,
덜그럭덜그럭 모으면서
쌓아 올린다.
그건 마치 기묘한 모습의
탑과 같다.
후미야의 목소리와,
지면을 차는 소리와,
시가타쓰가 의자를
쌓아 올리는 소리와,
교정을 지나가는
바람소리뿐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다.

이윽고 탑을 다 쌓자,
시가타쓰, 후미야를 향해 말을
건다.

시가타쓰: 사람은 본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은 본 것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인원수를 확인하는
테마음악이 흐른다.
전해주려는 후미야의
몸짓과 목소리, 점차 커진다.
시가타쓰, 의자에 앉은 채
그 모습을 본다.
음악이 흐르는 중에,
후미야의 춤은 이윽고
'런닝맨'이라는 움직임이 된다.
그것은 달리고 있는 모습 같지만
실제로 몸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동작이다.
'런닝맨'을 계속하면서 후미야,
계속 외친다.
점차 목소리는 절규처럼
되어간다.

후미야: 여기서 런닝맨!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여기서! 도망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여기서! 밖으로!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밖으로! 도망쳐!
여기서! 도망쳐! 이 자리에서!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여기서! 도망쳐!
이 자리에서!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런닝맨'은 수 분간 계속된다.
이윽고 후미야가 외치는 중에
떠나갔던 학생들, 한 사람씩
돌아온다.

아이리: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미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이리: 자! 꽃! 자! 비둘기!

후미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히치: 그건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후미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히치: 그건 동물 같기도
했습니다.

후미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레이나: 아, 저 솔개는 나를 먹으려나 봐.

후미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유우카: 어머니는 아직도 TV를 보고 있어.

후미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유우카: 틀림없이 나보다 먼저 잠들어 버릴 거야.

후미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모모: 저기, 사람은 뭣 때문에 자는 거지?

후미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이즈미: 지붕의 모양은 삼각형입니다!

후미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나쓰키: 창문의 모양은 사각형입니다!

후미야: 도망쳐! 여기서! 도망쳐!

유카: 회색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후미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시가타쓰: 몇 번이나 하는 말이지만.

후미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시가타쓰: 인간은 본 것을,

후미야: 도망쳐! 밖으로! 도망쳐!

시가타쓰: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해.

후미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시가타쓰: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돌아온 모두가 다시 생존확인의 점호를 하면서 빠진 빗(櫛)의 살을 다시 채우듯이 늘어서기 시작한다. 점호의 숫자, 이윽고 10을 지난다.

모두: 11!

모두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수를 센다.
수를 다 세고는, 교정의 맨 안쪽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후미야도 '런닝맨'을 그만 두고 모두의 뒤를 쫓아간다.
레이나만이 홀로 그 자리에 남아, 정면을 향해 이야기한다.

레이나: 그때 물론 죽지 않았고, 죽어 버리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모두가 때로 그러듯이 내가 없는 세상을 생각했다.
없어진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다.
없어지는데 이유 같은 게 있을까?
다만 이곳에서 내가 없어진대도, 이곳에 아무도 없게 된대도, 여기에 이 학교는 그대로 있을까 라든가
저 솔개는 여전히 날아다닐까 라든가
요컨대 내가 생각했던 건 그저, 그런 것이었다.

말을 마치고 레이나는 휙 몸을 돌려 모두의 뒤를 따라간다.
모두는 멀어져 가며 교정의 안쪽에서 이쪽을 향해 소리친다.

모두: 어-이! 어-이! 너는 새야?

레이나, 달려가서 학생들 속에 섞인다.
모두 다시 한 번, 이쪽을 향해 소리친다.

모두: 어-이! 어-이! 너는 사람이야?

아메야 노리미즈, 『Blue Sheet (Blue Tarp)』, 도쿄: 하쿠스이샤, 2014, 73-85쪽

***

연극 초연 장면,
이와키 소고고등학교, 후쿠시마, 2013.
사진: 아메야 노리미즈

자료 넷

이언 매큐언의 소설 『칠드런 액트』

이 소설은 남편과 갈등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외적으로는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을 판결해야 하는 런던의 한 판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주인공 피오나 메이는 존경받는 고등법원 판사이다. 그녀는 종교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사건들, 가령 초(超)정통파 유대인 하레디 공동체에 속한 여성이 종교적 관례대로 자신의 두 딸을 집에서 가르치지 않고 일반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사례 등을 맡고 있다. 그리고 수혈을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백혈병 소년의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소년은 법적 성년으로 간주되는 18세 생일을 3개월 남겨두고 있으며, 그 전까지는 부모가 소년의 운명을 결정할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오나는 소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으므로 두 사람은 병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내가 이 소설, 특히 주인공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부분을 자료에 포함시킨 이유는 그녀가 하레디 유대인 여성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것인가 또는 병원 측이 수혈 처치를 이행하도록 허가할 것인가 등을 선고하는 장면을 토대로,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무엇이 기대되는가 하는 문제를 조명해보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청소년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법적)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정의이며, 아마도 현실은 다를 것이다. 어쩌면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거는 기대 때문에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이 훌륭한 토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공동체의 종교적 신념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토론은 다음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것인가의 사례

• 세계는 크고 공동체는 작다. 하지만 후자는 편안하다.…만약 내가 이 아이라면 공동체와 더

이언 매큐언 지음, 민은영 옮김, 『칠드런 액트』, 서울: 한겨레출판사, 2015, 17-26쪽.

"아." 피오나는 중얼거렸다. "잭, 참 고상도 하시지."

"음, 사실은……" 그는 말을 꺼냈지만 끝맺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이미 외도를 시작했다는 말을 하려는 거라 추측했고 차마 그 말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눈에 선했다. 한 남자가 원망하는 아내에게 돌아갈 확률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예쁘장한 통계전문가. 햇살이 환한 아침과 낯선 욕실도 보였고, 아직도 몸에 근육이 잘 잡힌 잭이 단추를 반쯤 푼 흰색 마직 셔츠를 그다운 성급한 방식으로 머리 위로 벗는 모습, 떨어진 셔츠가 빨래바구니에 팔 하나만 걸쳐져 있다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모습 등이 보였다. 영원한 지옥. 결국 일어날 일이었다. 그녀가 동의하건 말건.

"내 대답은 '싫어'야." 피오나는 고집 센 여선생처럼 말끝을 올려 말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내가 달리 무슨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고 대화가 끝나기를 바랐다. 《가족법 리포트》에 들어갈 판결문을 내일까지 승인해야 했다. 유대인 여학생 두 명의 운명은 벌써 법정에서 결정이 났지만 판결문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했고, 항소에 대비하려면 종교적 독실함에 대한 존중심도 더 드러내야 했다. 밖에서는 여름비가 창문을 때렸고 멀리 그레이즈인 스퀘어 너머에서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에 타이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나를 떠날 테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겠지.

잭은 굳은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더니 뒤로 돌아 방을 나갔다. 멀어지는 등을 보며 피오나는 또 한 번 싸늘한 두려움을 느꼈다. 무시당할까 겁나지만 않았다면 그를 불러 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안아줘, 키스해줘, 그 여자를 가져. 복도를 따라 걷는 발소리, 침실 문이 단단히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파트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침묵, 그리고 한 달 동안 멈추지 않은 빗소리.

우선 사실 나열부터. 양측 당사자 모두 강한 유대감으로 결속되는 런던 북부의 독실한 하레디* 공동체 출신이었다. 번스타인 부부의 결혼은 양가 부모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이 그에 순응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주선이었지 강요는 아니었다고, 양측은 흔치 않은 의견일치를 보이며 주장했다. 십삼 년간 지속된 이 결혼은 분쟁조정사와 사회복지

* 세속 문화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초정통파 유대교.

넓은 세상 둘 다를 이해하고
필요로 할 것이다.

•나라면 좀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나는 공동체 안에 머무는 쪽을
택하겠다.

•내가 이 아이라면 엄마에게
아빠랑 이혼하라고 말하고
엄마랑 같이 더 넓은 세상을
보러 가겠다. 그런 공동체의
삶은 새장 속에 사는 삶과 같다.
그 공동체 안에 살게 된 불행한
아이가 가엾다.

수혈 여부의 사례

•종교가 나빴다, 그렇지 않나!

•내가 이 아이라면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하겠다. 백혈병에
걸렸다가 살아날 확률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종교가 한 가족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줄은 몰랐다.
이런 영향력에 대해 앞으로도 더
생각해보고 싶다.

***

이언 매큐언 지음, 민은영 옮김, 『칠드런 액트』, 서울: 한겨레출판사, 2015, 17-26쪽.

사, 판사를 포함한 모두가 동의했듯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금 부부는 별거 상태였다. 아이들의 양육은 두 사람 사이에서 힘겹게 이루어졌는데, 레이철과 노라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도 여러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었다. 결혼생활은 신혼 초부터 파탄나기 시작했다. 둘째 딸을 난산으로 낳은 어머니는 근치(根治) 수술의 결과로 임신이 불가능해졌다. 대가족을 소망하던 아버지는 고통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일정 기간(아버지는 '장기간'이었다고 했고 어머니는 '일시적'이었다고 했다) 우울증을 앓은 후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해 유용한 자격증을 취득했고, 둘째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 초등학교 교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아버지와 많은 친척들은 못마땅했다. 수백 년간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온 하레디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에게 기대되는 일은 되도록 많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학위를 따고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극도로 드물었다. 공동체에서 명망 높은 인물이 아버지가 요청한 증인으로 불려와 그렇게 말했다.

남자들 역시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다. 십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토라*를 공부하며 보냈다. 보통은 대학에 진학하지도 않았다. 어느 정도는 그런 이유에서 하레디 유대

인 대부분은 생활수준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번스타인 가족의 경우는 달랐다. 비록 소송비를 정산하고 나서는 아니라고 해도, 조부모 한 명이 올리브 씨 제거기 특허에 지분이 있어서 그 돈을 부부 공동명의로 물려주었다. 부부는 피오나도 잘 아는 여성 QC** 둘을 각자 고용했고 그들에게 가진 돈 전부를 쓸 형편이었다. 표면적으로 이 분쟁은 레이철과 노라의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아이들의 성장환경 전반이 걸린 문제였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었다.

하레디 유대인 학교는 순결을 지킨다는 이유로 남녀를 분리해 교육시켰다. 유행에 따른 옷차림이나 텔레비전, 인터넷은 금지되었고 그런 오락이 허용되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일 또한 불가능했다. 엄격한 코셔*** 규칙을 따르지 않는 가정은 배척당했다. 일상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는 확립된 관습이 있었다. 문제는 어머니 쪽이 유대교 자체는 아니지만 공동체와는 절연하려 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미 딸들을 텔레비전과 대중음악과 인터넷, 유

*유대교 율법.
**Queen's Counsel. 실력을 인정받은 소수의 법정변호사에게 주어지는 호칭. 이들이 입는 실크 법복에서 이름을 따와 '실크(silk)'로도 불린다.
***유대교 율법에 맞게 조리된 음식이나 그 재료.

이언 매큐언 지음, 민은영 옮김, 『칠드런 액트』, 서울: 한겨레출판사, 2015, 17-26쪽.

대인이 아닌 아이들과의 교유까지 허용하는 남녀공학 유대인 중학교에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딸들이 열여섯 살이 넘어도 학교에 다니기를, 아이들만 원한다면 대학에도 진학하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증거자료에서 딸들이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용을 배우고,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취업의 기회를 얻고, 어른이 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가족을 부양할 전문기술을 가진 남편을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보수도 없이 주 여덟 시간 토라를 가르치는 그녀의 남편과는 다른 남편을.

그런 주장의 합당함과는 별개로 (창백한 각진 얼굴에, 적갈색 곱슬머리를 쓰개로 가리지 않고 커다란 파란색 머리핀만으로 고정시킨) 주디스 번스타인은 법정에서 수월한 존재가 아니었다. 주근깨 많은 성마른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변호사에게 쪽지를 보내고, 딴에는 소리 죽여 한숨을 쉬고, 남편의 변호사가 말할 때마다 눈을 굴리거나 입을 삐죽댔다. 커다란 낙타가죽 핸드백을 경우 없이 뒤지거나 흔들고, 어느 긴 오후의 힘겨운 순간에는 핸드백에서 담배 한 갑과 라이터를 꺼내 남편의 사고체계에서는 도발적일 것이 분명한 그 물건들을 재판이 끝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앞에 나란히 늘어놓기도 했다. 피오나는 높은 자리에 앉은 이점으로 이 모든 광경

을 볼 수 있었지만 모르는 척 관망했다.

번스타인 씨의 증거자료는 아내가 분노조절장애(가사부에서는 혼한, 그리고 종종 상호간에 주고받는 비난이다)가 있는 이기적인 여자이며, 결혼서약을 무시하고 시부모와 공동체와 언쟁을 일삼고, 딸들을 그 모두와 단절시켰음을 판사에게 납득시키고자 했다. 이에 대해 주디스는 오히려 시부모님이 자신들을 보지 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자신과 두 딸이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을 되찾고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현대사회와 절연하기 전에는, 그리고 당신들의 기준에 맞는 코셔 규칙을 준수해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갈대처럼 키가 커서 아기 모세를 숨겨준 골풀을 연상시키는 줄리언 번스타인 씨는 사과라도 하듯 법정서류 위로 고개를 숙이고 긴 구레나룻을 침울하게 흔들며 자신의 변호사가 아내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 아내가 아이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와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딸을 따뜻하고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억지로 떼어놓으려 한다. 규율은 엄하지만 사랑이 가득하고 규칙의 준수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 정체성이 분명하고 세

이언 매큐언 지음, 민은영 옮김, 『칠드런 액트』, 서울: 한겨레출판사, 2015, 17-26쪽.

대를 거듭하며 삶의 방식이 증명된 환경, 세속적이고 소비지상주의가 만연한 외부세상, 즉 영적인 삶을 조롱하고 대중문화가 소녀와 여자를 폄하하는 바깥세상에 비해 구성원들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더 큰 성취감을 느끼는 환경에서 말이다. 변호사는 아내의 야망이 경박하고 삶의 방식이 무례하며 파괴적이기까지 한 사람, 자식들보다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 말에 주디스는 쉰 목소리로 남녀를 불문하고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만큼 사람을 폄하하는 행위는 없다고, 아동기와 청소년기 내내 자기 삶의 유일한 목적은 남편을 위해 좋은 가정을 만들고 그의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일이라 듣고 자랐다고, 그리고 그 역시 삶의 목표를 스스로 정할 자신의 권리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방송통신대학에서 힘들게 공부할 때 맞닥뜨린 것은 조롱과 멸시와 배척이었다. 그래서 딸들만큼은 그런 한계를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양측 변호사는 (분명 판사의 견해가 그러하리라고 생각했기에) 논점이 단지 교육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전술상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 법정은 딸들을 대신하여 철저히 종교적인 것과 그보다 덜 철저한 어떤 것 사이에

서 선택을 해야 했다. 그것은 부모의 상이한 종교적 태도가 아이들의 문화, 정체성, 심리상태, 포부, 가족관계, 근본개념의 정의, 기본적 신의, 알 수 없는 미래 등의 문제에 대해 내놓은 두 가지 삶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었다.

이런 문제는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딱히 해로워 보이지 않으면 그쪽으로 판단이 흐르는 경향이 강했다. 피오나는 스물한 장의 판결문 초안을 넓은 부채꼴로 바닥에 엎어놓고 한 장씩 집어 들어 무른 연필로 표시해나갔다.

침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빗속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차들의 속삭임만 빼면 사방이 고요했다. 남편의 기척을 신경 쓰는 자신이 싫었지만 그녀는 숨을 멈춘 채 주의를 집중해 문이나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귀 기울였다. 들리기를 원하며, 들릴까봐 두려워하며.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 피오나 메이는 찬탄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본인이 없는 곳에서도 반어적이면서도 온기 있고 명쾌한 그녀의 문장을, 쟁점을 짚어내는 간결한 용어를 칭찬하곤 했다. 점심식사 자리에서 대법원장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었다. "신과 같은 거리두기야. 악마 같은 이해력이야. 그런데 여전히 아름답단 말이지." 그리고 피오나 본인은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글이 누군가는 지나치게

이언 매큐언 지음, 민은영 옮김, 『칠드런 액트』, 서울: 한겨레출판사, 2015, 17-26쪽.

현학적이라 할 정도로 정확성을 추구하고, 논쟁의 여지없는 정의(定義)를 내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피글로프스카 대 피글로프스키 소송의 호프먼이나, 빙엄이나 워드,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스카먼 등 여기에 인용된 모든 법관들처럼 자신 역시 언젠가 다른 글에 빈번히 인용될 수 있는 완벽한 정의를 내리고자 했다. 여기라 함은 자신의 손가락 끝에 늘어져 있는 아직 읽지 않은 판결문 첫 장을 뜻했다.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 건가? 이제 곧 법관 친구들이 여기나 링컨즈인, 이너템플, 미들템플에서 점심을 먹다가 경외심을 담아 소곤거리게 되는 걸까? 그래서 남편을 내쫓은 거야? 그레이즈인의 이 멋진 아파트에서, 고독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임대료가, 혹은 세월이 침울한 템스 강의 조수처럼 계속 불어나 급기야 나까지 몰아낼 이 아파트에서.

다시 일에 집중. 1절: '배경.' 가족의 생활환경, 아이들의 거주지, 그리고 아버지와의 접촉에 대해 통상적인 논평을 한 다음 피오나는 별도의 단락을 할애해 하레디 공동체를 설명하고 그곳에서는 종교적 실천이 곧 절대적인 삶의 방식임을 밝혔다. 카이사르에게 바칠 것과 하느님에게 바칠 것의 구분*은 율법을 엄수하는 이슬람교도에게 그런 것만큼이나 그들에게도 의미가 없었다. 연필이 허공을 맴돌았다. 이슬람교도와 유

대인을 하나로 묘사할 필요까지는 없나? 최소한 그 아버지는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피오나는 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살리고.

두 번째 절의 제목은 '도덕적 차이'였다. 법정은 어린 두 소녀를 위한 교육을 선택하도록, 다른 가치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에 호소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피오나는 호프먼 경을 언급했다. '합리적인 사람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있다. 이는 판사 역시 사람이므로 가치를 적용할 때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피오나는 지엽적인 논제를 끈기 있고 철저하게 파고드는 성향이 생겼고, 그 페이지에서도 수백 단어를 할애해 복지의 정의를 내린 뒤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고찰했다. 헤일셤 경의 선례에 따라, 그녀는 복지란 안녕과 분리할 수 없는 용어이며 한 인간으로서 아동의 발달에 관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오늘날의 아

*마태복음의 한 구절인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를 말하는 것으로서 흔히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쓰인다.

이언 매큐언 지음, 민은영 옮김, 『칠드런 액트』, 서울: 한겨레출판사, 2015, 17-26쪽.

동이 22세기까지 살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는 톰 빙엄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복지를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이나 신체적 안락함에 의거하여 측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린들리 판사의 1893년 판결문도 인용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폭넓은 관점을 지니고자 했다. 복지, 행복, 안녕은 좋은 삶의 철학적 개념을 포괄해야 한다. 피오나는 그 구성요소와 아동이 성장하며 추구할 목표를 열거했다. 경제적·도덕적 자유, 미덕, 공감과 이타심, 어려운 과제 수행을 통해 충족감을 얻는 직업, 사적 관계망의 확장, 타인의 존중, 더 큰 존재 의미의 추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정의되는 하나 혹은 소수의 중요한 관계가 중심에 자리한 삶.

그렇지, 이 마지막 필수요소에서 난 실패를 겪는 거야. 입도 대지 않은 스카치앤드워터 잔이 옆에 놓여 있었다. 이제는 소변 같은 노란색과 거슬리는 코르크 냄새가 역겨웠다. 더 화가 나야 마땅했다. 옛 친구들에게(제법 여러 명 있으니) 얘기하고 있어야 마땅했다. 침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더 꼬치꼬치 묻고 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자신을 목적의식의 기하학적인 한 점으로 몰아대는 듯이 느껴졌다. 인쇄에 들어갈 판결문을 내일 마감 시한에 맞춰 완성해야 했다. 일을 해야 했다. 개인의 삶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또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했다. 손에 든 문서와 15미터 떨어진 닫힌 침실 문 사이에서 주의가 분산되었다. 피오나는 힘들게 정신을 집중해 긴 단락을 읽었다. 법정에서 소리 내어 말하는 순간 미심쩍은 느낌이 든 부분이었다. 하지만 명백한 내용을 강력하게 진술한다고 해가 될 일은 없었다. 안녕은 사회적인 것이다. 아동이 가족 및 친구와 맺는 복잡한 관계망은 그 핵심 구성요소이다. 아동은 섬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피오나는 이 주제에 관해 서술한 사백 단어와 함께 항해를 시작했고, 학식 높은 문헌들(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을 참조하여 돛을 부풀렸다. 훌륭한 판결문에 필요한 교양 있는 접근.

다음으로, 안녕은 변하기 쉬운 개념이며 현대의 합리적인 개인들이 가진 기준에 의거해 평가받아야 한다. 한 세대 전에 충분했던 것이 지금은 부족할 수도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종교적 믿음이나 신학적 차이를 두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세속 법정이 할 일이 아니다. 퍼처스 판사가 말했듯이 모든 종교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스카먼 판사의 좀더 부정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부도덕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쾌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자료 다섯
태국 군사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태국 고등학생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

사진 제공: 카오솟 영문판

펭귄이라는 별명을 가진 태국의 고등학생 파릿 치와락은 군부독재 정부의 수상이 보는 앞에서 “태국의 어린 학생들이 부패한 성인으로 자라지 않도록 가르치려면 시민의 의무를 암기하기보다 합리성과 윤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어느 학생이 뚜 아저씨에게.”라고 쓴 배너를 펼쳐 들고 시위를 했다. 뚜 아저씨는 수상을 부르는 별명이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현 정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만든 태국의 “열두 가지 가치”와 어린 학생들이 ‘부패한 성인’으로 자라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한 ‘시민의 의무’의 목록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역사 교과서 수정을 감행함으로써 교육에도 개입을 했다. 올해 열일곱 살인 펭귄은 군사체제의 교육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관계당국에 직접 호소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과 펭귄은 하룻밤 사이에 민주주의 행동가들 사이에서

「프라윳 총리 앞에서 시위한 학생이 쫓겨나다」
『방콕 포스트』, 2015년 6월 9일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연설 중이던 컨벤션 홀에서 11학년 학생 한 명이 강제로 쫓겨났다. 학생은 시민의 의무 과목은 어린 학생들이 부정부패에 대항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므로 현행 교과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너를 꺼내 들었고, 곧이어 강제 퇴장 당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가반부패의 날을 기념한 프라윳 총리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총리는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 앳 센트럴 월드 호텔에서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고, 마지막 순서로 청중의 질문을 받기로 했다고 『마티촌 온라인』은 전했다.

고등학교 교복 차림의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고, 다음과 같이 적힌 배너를 펼쳐 들었다. “태국의 어린 학생들이 부패한 성인으로 자라지 않도록 가르치려면 시민의 의무를 암기하기보다 합리성과 윤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어느 학생이 뚜 아저씨에게.” 뚜 아저씨는 프라윳 총리의 별명이다.

경비원 두 명이 다가와 학생을 컨벤션 홀 밖으로 불러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비원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를 밖으로 끌어냈다.

“살살 하세요.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잘 살펴 주세요.” 프라윳 총리가 무대 위에서 말했다.

총리는 그에게 어떤 과목을 청원하고 싶은지 물었고, 학생을 위해 그 과목을 교과과정에 넣도록 당국에 지시했다.

잠시 청중은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했지만, 방금 학생이 혹 친 정부인사는 아니냐는 총리의 유머 덕에 분위기는 곧 무마되었다. “저기, 보안요원님들, 만약 그렇다면 그 학생 잘 좀 봐주세요.” 총리의 말에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파란을 일으켰고(저명한 태국 역사학자들과 토론하는 자리에 초청받기도 했다.), 그 후로도 민주적인 교육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전면에서 활발한 싸움을 계속했다.

***

파릿 치와락과의 인터뷰

게이코 세이

배너를 들었던 학생으로 뉴스 기사에 소개된 파릿 치와락을 세 번에 걸쳐 만났다. 그의 별명은 펭귄이다. 우리의 교과서 프로젝트를 위해 마지막 만남에서는 바쁜 시험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처음으로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각성의 순간은 몇 살 때였는가? 어떤 계기 때문이었나?

열살 때 프랑스혁명에 대한 책을 읽고 ‘자유’ 개념을 알게 되었다. 그 때 그 개념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내가 이해하는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열네 살 때 붉은 셔츠[1]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데모를 많이 봤는데, “절대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옷에 자주 써 있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교과서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습, 즉 독재자를 찾는 사람들의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이 시민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 인습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태국 교과서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사, 성교육, 시민의 의무 교육처럼 사회와 관련된 과목들은 현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이미 고정되어 있다. 당국이 십 년에 한 차례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는데, 그마저도 교과서 발행인들은 내용 수정을 안 하려 든다. 역시 비용절감을 위해서다. 특히, 동성애, 사회적 가치, 애국, 같은 주제들은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 또, 도덕과 윤리, 심지어 역사적 쟁점들을 설명할 때조차 교과서 표현이 명령조라는 것도 문제다.

시위 학생은 현재 한 명문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태국교육제도의 변화를 주장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모임인 시암 해방을 위한 교육 운동의 사무국장이다. 그는 지금 빠뚬완 경찰서로 넘겨져 조사를 받는 중이다. 탐마삿 대학의 학생운동가들이 얼마 뒤 그를 응원하러 왔다.

그는 시민의 의무를 교과과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직접 프라윳 총리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국가기관들을 거친다면 편지가 총리에게 직접 도달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편지 내용에 의하면, 어린 학생들에게 반부정부패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민의 의무를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신 교사들은 교실에서 철학과 윤리학을 가르쳐야 한다.

그는 시민의 의무 교과는 주로 학생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르며, 훌륭한 태국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왜’라는 질문을 하는 중요한 단계를 건너뛴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실제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윤리학과 철학을 배우면 어린 학생들은 상황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죠.”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절대 다른 저의 없이 오로지 프라윳 총리에게 청원을 하러 왔고, 교육개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배너의 내용은 결코 폭력적이지도, 누구를 공격하지도 않았다. 더 이상 경찰서에 감금되어 있을 이유가 없었다.

총리 대변인이 그의 청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십대 소년을 기소하지도 않았고 일간지에 이 사건을 알리지도 않았다. 학생의 부모를 불러 간략하게 사건을 설명한 다음 귀가 조치했다.

만약 교과서를 만든다면, 어떤 종류의 자료를 포함시키고 싶은가?

교과서는 엄정한 사실로만 채우고, 최근 내용이 업데이트된 소책자나 복사자료 같은 기타 자료를 많이 활용하겠다. 그리고 가치나 태도에 대해서는 받아 적지 않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다. 주 교재는 토론을 거쳐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사실과 관련된 맥락에 대한 설명은 줄여야 한다. 객관적 분석과 사적인 태도는 “각자의 견해에 달려있다.”는 주석을 붙여야 한다.

교과서 제작에 학생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과서를 만들 때는 반드시 학생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내용은 가능한 폭 넓은 견해를 담아야 하고, 이를 위대한 진실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역사를 가르칠 때는 사실과 진실이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반드시 추가적인 분석도 제공해야 한다. 나는 각 과목마다 고유한 정신이 있다고 믿는다. 교과서를 제대로 만든다면 학생들은 틀림없이 그 정신을 이해할 것이다.

당신은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학생 단체인 ‘시암 해방을 위한 교육 운동’의 일원이다. 정확히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초점을 청소년 역량강화에 두는 단체이다. 가령, 학생의 두발규제를 없애기 위해 싸운다던가 시민의 의무 교육(군사정권이 강요한 열두 가지 가치[2] 같은 것이 그 예다.) 반대 캠페인 등을 한다.

당신이 군부독재자에 대해 시위를 한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결행하기 전의 심정이 어땠는가?

떨렸다…. 체포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말할 내용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떨렸다.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에게 “정상적인 사회”란 어떤 것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 자유가 있어야만 의심하고 질문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의심과 질문이 있어야만 비로소 변화는 일어난다.

태국은 수많은 시민 소요와 쿠데타로 얼룩져 있지만, 펭귄은 여전히 자국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의 표현을 빌자면,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1. 지난 십 년 동안 태국 사회는 노란 셔츠와 붉은 셔츠 집단으로 나뉘어있었다. 노란 셔츠 집단은 군주제를 옹호했고, 백만장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전 총리 탁신 친나왓을 반대했다. 그들은 오로지 총리를 태국 정치계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쿠데타의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붉은 셔츠 집단은 총리 지지자들 그리고/또는 어떤 식이든 쿠데타를 반대하는 그 외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2. 현재 태국은 군부독재 치하에 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군주제 국가이기도 하다. 군사정권은 국가를 위해 유용하다고 믿는 가치체계를 강요하지만,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은 이것에 반대한다. 열두 가지 가치는 다음과 같다.
1)세 가지 주된 기둥, 곧 국가, 종교, 군주를 떠받치기
2)공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정직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기
3)부모, 보호자, 스승에게 감사하기
4)직간접적으로 지식과 교육을 추구하기
5)소중한 태국전통을 아끼기

6)너그럽게 서로 나누면서 도덕성, 진실성, 타인에 대한 선의를 가지기
7)국가의 수반이신 국왕 폐하와 민주주의 이상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고 배우기
8)규율을 지키고 법과 어르신, 연장자를 존중하기
9)국왕폐하의 국정 철학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의식하기
10)국왕폐하의 자족적 경제를 적용하고, 만일의 때를 위해 저축하며, 든든한 동안 나눔이나 사업확장을 위해 쓸 여분을 비축하며 절도를 지키기
11)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검은 세력이나 욕망에 굴하지 않으며, 종교적 원칙을 따라 범죄와 죄에 대해 수치심 갖기
12)사적 이익보다 공익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다섯 명의 학생들은 이 태국 청소년에게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만약 공식 교과서를 편집할 책임을 맡게 된다면 이 다섯 편의 자료 중에 무엇을 포함시키겠냐는 질문을 던지자, 다섯 명 학생 모두가 펭귄의 이야기를 골랐다. 가장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각자 대답이 달랐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는 데모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좌절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던 게 틀림없다.

• 그가 한 행동은 아주, 아주 중요했다. 인간의 생각은 막강하고, 중요하다. 역사 시간에 학생들이 연도나 암기하게 내버려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역사 시간과 역사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 한국에서는 역사 시간에 연도를 외우는 데 집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 내가 공부하는) 하자 센터에서는 여러 공동체와 그들의 역사를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 한국에는 도덕과 윤리 시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이 우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 이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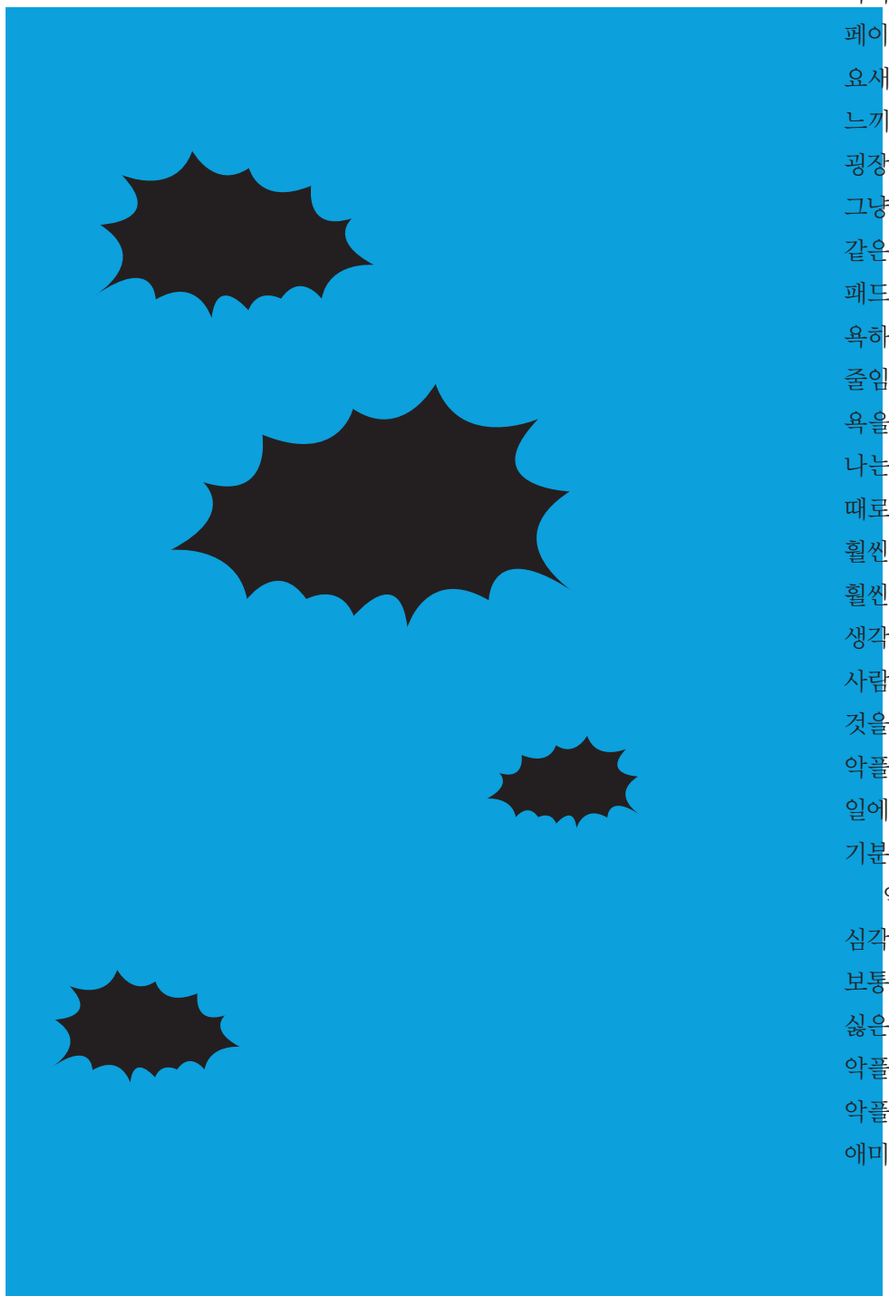
• 한국 학생들은 펭귄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한국 학생들도 좌절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일은 거의 없다. 세월호 사건에 관련해서도 문제는 너무 많다. 좀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만 한다.

• 펭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교육과 교과서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다.

• 펭귄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알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시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피켓에 써 있는 말의 의미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멋있다고 생각해서 시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문제의 진짜 성격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태국 학생은 문제를 철저하게, 제대로,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뒤 학생들은 2차 교과서를 위한 자료들을 각자 제안했다. 다음 섹션에서 그것들을 소개할 것이다.

***



2차 '교과서'

악플

야니: 나는 몇 년 동안 페이스북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요새 들어 부쩍 더 심각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악플 문제이다.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냥 보통 얘들이 장난처럼 ㅅㅂ 같은 것들을 쓰는 정도를 넘어서 패드립(부모님과 같은 윗사람을 욕하거나 놀리는 패륜적 드립의 줄임말)을 치거나 성에 관한 욕을 하는 심한 경우들이 많다. 나는 이런 악플을 보는 것이 때로는 직접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분이 나쁘고, 훨씬 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악플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일에 직접 관여가 되지 않았어도 기분이 많이 나쁘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왜 그 심각성을 모르는지 의문이 든다. 보통 내가 싫은 건 남한테도 싫은 건데 말이다. 또 그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플을 달아버리면 그냥 ㅇㅇ 니 애미 이렇게 받아 버린다. 정말

너무 심각하다.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연예 관련 기사도 그렇고, 간혹 기자들까지 이상하게 쓰기도 한다. 남에게 많이 상처가 된다는 걸 악플러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고 못 깨닫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문제를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미: 내가 생각하기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생각을 좁게 하고, 자기와는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의견을 안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믿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화나고 혼란스러워서 악플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정혜: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미가 말한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는 게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 안에서만 우리가 세상을 다 보니까 말이다.

야니: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뭐든지 다 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뛰어 놀아야 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게이코 세이: 시야가 좁아지는 것과 세상이 작아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이걸 통해서 다 알 수 있다고들 말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학생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견문을 넓히고 그래야 하는데 이거 하나면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

동성애

푸요: 학교 동아리 시간에 토론 동아리였던 나는 조끼리 나누어 하나의 토론 주제를 정해 토론을 해서 종이에 적어 내야만 했다. 가장 뜨겁고도 논란이 많은 '동성애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대충 적어 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이 주제는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와 평소에 친하게 지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친구가 동성애를 혐오한다고 할 정도로 싫어하고 있던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글을 보면 '그들이 불쌍하다, 우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굳이 그들을 욕할 이유가 있냐'는 말들뿐이라 나는 정말 특정한 소수를 제외하곤 거의 찬성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번 토론에서 내 생각을 뒤집어엎는 말들이 마구 나왔던 것이다. 동성애를 혐오한다고 할 정도로 싫어하는 내 친구가 그랬다. "나는 결사반대. 절대 동성애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야."라고 하며 갑자기 종교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집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안되고, 부모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주셨어."라며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 반박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들도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인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말이다. 사랑하는 감정은 인간에게 정말 중요하고, 본능 중 하나인데 본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달랐다. 선천적인 동성애는 없기 때문에,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체 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동성애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의문이 갔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궁금해졌다.

***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찌루: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덕분에 3살 때부터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다녔다. 그리고 어린이집 친구들이 가는 대안학교에 자연스럽게 입학했다. 그로부터 9년이 흘러 학교를 졸업한 후 홈스쿨링를 하고 여행 대안학교인 로드 스꼴라를 다니고 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대안교육을 받아 오며 자란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다. 그래, 난 '학교 밖 청소년'이다. 17년 동안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오면서 배배 꼬인 차별과 질문들을 받아내야 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에피소드 두 가지를 이야기 해보겠다.

어느 날 내가 택시에서 기사 아저씨와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눴을 때였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기사 아저씨는 나에게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물었다. 잠깐 망설였지만 숨기고 싶지 않아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기사아저씨는 "학교에서 잘 적응 못했니?"하고 물었다. 저기서 말하는 '학교'는 공교육의 일반 학교일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일반 학교는 잠깐 체험하고 온 것이 전부인 나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잠깐 동안 정지됐다. 아저씨는 아니라는 나의 대답에도 의심이 들었는지 재차 확인했다. "사고 친 거니?"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닌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야 기사아저씨는 조금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했다.

또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볼링장을 갔을 때였다. 학생 요금과 성인 요금이 꽤 차이가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학생 요금으로 계산하려고 했다. 학생 할인을 받으려면 학생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학교는 학생증이 없어서 그 대신에 청소년증을 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소년증은 안 된다는 거였다. 학생증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직원한테 따졌지만, 자기들은 학생증으로 해야 하는 것이 철칙이라며 끝까지 청소년증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그 볼링장은 청소년증이 아닌 학생증만 인정해주고 있다.

점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요즘은 좋지 않은 편견과 차별보다 '용감하다'라던지, 멋있다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안학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 '일반 학교에서 사고 친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는 편견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일반 학교도 그렇듯, 대안학교에도 어른들이 싫어하는 '불량 학생'들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그런데 일부 대안학교의 모습을 보고 모든 대안학교는 질이 나쁜 애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지독한 편견은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런 편견들 때문에 대안학교 학생으로서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은 덤이다. 대한민국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으로 살아가려면 아직 견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I'm fine! (난 괜찮다구요!)

***

리야 바타차르지, 「버클리고등학생들이 도서관 컴퓨터에 뜬 인종차별 메시지에 항의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스프라울 광장에 모인 학생 시위자들은 학교 도서관 컴퓨터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겨냥한 인종차별적이고 위협적인 메시지가 뜬 뒤로 불안하다고 말했다.」
『NBC Bay Area』, 2015년 11월 5일
http://www.nbcbayarea.com/news/local/Berkeley-High-School-Students-Walk-Out-After-Racist-Message-Pops-Up-on-Library-Website-341018802.html

지난 목요일 버클리고등학교의 학생 수백 명이 학교 도서관 컴퓨터 한 대에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위협적인 메시지가 뜬 것에 항의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포스터와 확성기를 든 고등학생들은 밀비아 거리로 나와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와 "인정하기 싫으면 주먹을 들라."라는 구호를 외쳤고, 학교 측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시빅센터 공원에서 버클리 시청까지 행진을 했다. (버클리 경찰 추산 최소 7백 명이 모인) 이 행진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 버클리) 안에 있는 스프라울 광장의 계단에서 끝이 났다. 스프라울 광장은 1964년의 자유언론운동 이후로 학생들의 시위 장소로 애용되어 온 곳이다. 고등학생들은 버클리 경찰의 표현처럼 "평화롭고 우정 어린" 시위를 펼치는 내내 "선배들이 모범이었습니다. UC 버클리는 함께 해요."라고 외쳤다.

버클리고등학교의 교장 샘 패서로우가 보낸 편지에 따르면, 이 "증오에 가득 찬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는 수요일 오후 12시 30분쯤 발견되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버클리고등학교 흑인학생연합이 캡쳐해서 트위터에 올린 스크린샷에는 "KKK여 영원하라 2015년 12월 9일 공개 린치", "우리

시위 장면, 버클리고등학교, 캘리포니아, 2015. (사진: 럭키 밀로 윗번-토마스)

우리의 목소리

아미: 내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뉴스 기사와 사진이다. 내가 자라면서 8년 동안 알아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버클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고등학교의 3-40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인데, 얼마 전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학교 도서관 컴퓨터에서 백인우월주의 단체 KKK(쿠클럭스 클랜)를 언급하는 극단적 인종차별 메시지가 발견됐다는 거다. 거기에는 KKK를 지지하며 흑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버클리라는 곳이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곳이고, 흑인들이 그 중 3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이건 말도 안 된다.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도 잘 안되고 있다. 일단 그런 얘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건 우리 삶에 위험한 협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 삶에는 모두 의미가 있고, 우리는 함께 살고 싶고, 그 누구도 인종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며 시위를 한 거다. 그리고 이건 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4교시 끝나고 다 모여 조용히 나가서 시청까지 갔다고 한다.

난 이걸 학생들끼리 했다는 것이 멋있고, 이들 중 일부가 나와 함께 자란 내 친구들이라는 것도 멋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태국에서 한 학생이 태국 총리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한 걸 알게 되었고, 이 또한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다. 교육 제도를 비롯한 어떤 문제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안하고 우리끼리만 이건 문제라고 말하면서 정작 행동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집 뒷마당에서 검**의 목을 매달았다.” 등 증오 가득한 표현이 눈에 띈다. 교직원들은 지난 목요일 오후 이 메시지를 올린 학생을 찾아냈다. 패서로우 교장은 이 15살 소년이 인종차별 메시지를 올린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혐의 학생은 정학과 법적 기소를 포함하여 심각한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교직원은 전했다.

흑인학생연합은 이 메시지를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흑인학생연합은 “흑인 학생들은 공공연히 안전을 위협받아왔다. 우리 흑인학생연합은 버클리고등학교 행정부서와 버클리 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어 성명서는 과거에도 흑인학생들을 겨냥한 이와 유사한 행위들이 간과되어 왔다고 말했다. 버클리고등학교 학생 루시 로젠탈은 트위터를 통해 학생들이 그 메시지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토로했다. 역시 버클리고등학교 학생인 애린 크리어도 “흑인 여학생인 나는 두렵고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12월 9일에 공개 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흑인이므로 린치를 당할 수도 있다. 12월 9일에는 돌아다니지 않겠다.”

학생들은 관할당국이 이런 위협을 즉각 알려주지 않았다는 데 분노했다. 교직원들이 수요일 오후에 이 메시지를 발견했는데도 교장은 그날 밤 늦게나 되어서야 학생과 부모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패서로우 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인정했다. 스프라울 광장 시위 현장에 나타난 패서로우 교장은 이 시위를 지지하며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서로우 교장은 이메일에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증오 범죄이자 메시지”라고 언급하면서, 버클리고등학교와 버클리 경찰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과 같은 증오 범죄가 우리학교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가져올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 가져올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라고 패서로우 교장은 이메일을 통해 전했다.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번 일이 야기한 피해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교직원으로서 우리는 이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돌볼 것인가를 고민할 것입니다.”

버클리 학군연합의 대변인 마크 코플란은 『데일리 캘리포니아』를 통해 해당 스크릿샷은 도서관 컴퓨터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킹 행위는 없었다고 전했다. 버클리 시장 톰 베이츠와 버클리 시 시의원 제시 아레귄(버클리고등학교를 관할 하에 두고 있으며, 목요일 오전 버클리 시청에서 학생들 시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도 버클리에서는 어떤 종류의 혐오 발언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파렴치한 인종차별적 위협에 분노를 느낀다. 버클리의 가치관과는 절대로 양립 불가이다.”라고 베이츠는 말했다. “이런 인종차별적 비방은 버클리를 포함하여 아직 우리 주변에 인종차별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버클리에 거주하는 코미디언 W. 카마우벨의 트위터에는 “멋지다! 잘했다, @버클리흑인학생연합!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이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새로운 것

정혜: 나는 『아파트 게임』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책은 우리나라 중산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책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파트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가 전세 제도인데, 이 전세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부를 증식하기 시작했다. 내 집은 갖고 있으면서, 다른 신도시에 어떤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고 하면 또 거기 집을 사서 자신의 부를 키우는 방식이었다. 이게 심해지니까 아파트 값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얻는 이른바 불로소득이 점점 많아졌다.

그런데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이전 세대들은 그래도 뭔가 자기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구하면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니까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는데, 우리 세대는 70퍼센트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는 현실에서 더 이상 대학교가 우리의 목표

박해천, 『아파트 게임』, 서울: 휴머니스트, 2013, 113-116쪽.

트에서 느리고 한적한 삶, 그리하여 심신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삶 정도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주한 지 5~6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다.

실제로 아파트 시장의 현재 상황은 출구를 알 수 없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전세가가 시세를 떠받치고 서 있는 형국이 아닌가? 한국만의 독특한 민간 임대 제도인 전세 제도는 호황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최전방 공격수인 다주택 보유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미드필더'로 대활약을 펼쳤다. 일종의 '사금융'이나 다름없던 이 제도는 불황이 닥치자 재빨리 후방으로 되돌아가 '최종 수비수'로 전환한 뒤 가격 하락세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그러니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파트 시장의 진정한 '리베로'라고 말이다. 결국 이 제도 덕분에 보유자에게 가야 할 가격 하락의 압력, 은행으로 가야 할 부실 대출의 압력 상당 부분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젊은 세대의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고통 분담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K씨가 보기에 전세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의 아파트는 위기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왕래가 편하다거나, 학원들이 몰려 있어서 자녀 교육이 수월하다면 말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도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것도 이런 입지 조건이 보호막 구실을 해준 덕분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K씨의 아파트는 어떤가? K씨를 비롯한 베이비붐 세대가 삶의 마지막 정착지로 택한 곳은 교통의

편이성이나 사교육과는 거리가 먼 수도권의 외곽 지역이었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불과 5~6년 앞서 2000년대 초반에 이주한 이들보다 세 배에 가까운 비싼 분양가를 지불한 터였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최근까지 그들 중 일부는 K씨와 마찬가지로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간판을 내걸고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었다. "개업 후 3년 내에 자영업의 50퍼센트가 폐업한다"는 통계치 앞에서도 그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며 각오를 다지고 의연하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한 채가 담보물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까지는 희망을 버리려고 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약 400조 원을 넘어선 50대 이상의 가계 부채가 불평등한 확률로 그들 중 상당수를 파산 상태로 내몰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25]

아파트의 하락세와 자영업의 위기, 그 사이에 똬리를 튼 이들 세대의 불행은 자녀 세대에게 고스란히 증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자녀 세대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한 채는 그래도 물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빚더미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 대다수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걸 가져본 적 없는 월세 인생들일 것이다.[26]

K씨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상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서둘러 커피전문점 안의 현실로 돌아왔다. 방금 전 아르바이트생 P군이 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로 모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P군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친

26. 자기 세대의 중산층에 대한 K씨의 생각을 386 세대에게도 적용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정리되지 않을까? "386 세대의 중산층은 아마도 앞선 세대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탈출구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다. 지방 출신이라면 고향 인근의 중소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일종의 해결책처럼 제시되지 않을까?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를 활용하면 그 차액만큼 자영업의 선택 범위를 넓힐 수 있고, 문화적 격차를 활용하면 틈새시장도 파고들 수 있지 않은가? 아마도 다른 무엇보다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완공한 지 30년이 지난 이들 소유의 낡은 아파트였다. 특히 노태우 정권 시절에 지어진 1기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이들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 노후 아파트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혹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를 떠나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다.

나는 영상 공부를 하고 있고 예술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어쩌면 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잃을 것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꼭 가야만 취직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와해되었다. 그래서 더 궁금했다.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전히 대학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지 등이 말이다. 물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나는 변화하고 있는 이 시기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에 오히려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다.

게이코 세이: 물론 정혜 학생처럼 지금 이 시기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적기라고

박해천, 『아파트 게임』, 서울: 휴머니스트, 2013, 113-116쪽.

절하고 성실한 지방 출신 학생이었다. K씨는 P군을 볼 때마다 자식 가진 부모로서 묘한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다. K씨가 보기에 몇몇 명문대를 제외하고는 대학 졸업장은 사실 별 볼 일 없어진 지 오래였다. 80퍼센트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사회에서 대학은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의 장소일 따름이었다. 군대와 다를 게 없다고나 할까.

물론 대졸자의 평균 임금이 고졸자의 1.6배가 넘는다며 내 자식만큼은 반드시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넘쳐난다는 걸 알고 있다. K씨도 그중 한 명이었으니까. 하지만 K씨는 그런 차별이 대학이 그들에게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고교 졸업생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서 그들의 지적 역량과 학습 능력이 정규 분포 곡선 상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연유로 K씨가 보기에 지금 '대학생'이라는 직함의 진정한 의미는 그 직함의 보유자가 취업 준비를 위해 사회 진출의 시간을 유예한 채 또래 집단과 인맥을 쌓고 '스펙'을 만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물론 이 직함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매년 1,000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이 그것이었다. P군 같은 처지의 학생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확실히 P군의 인생 전략은 초장부터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게 확실했다. P군은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지불하며 대학생이라는 '청춘'의 시간을 얻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시간을 자신의 노동력까지 보태 5,000원이 약간 넘는 헐값의 시급을 받으며 K씨에게 되팔고 있다. 등록금과 아르바이트 임금을 둘러싼

두 번의 거래. 아마도 P군은 졸업할 때까지 이 이상한 거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K씨는 매장 구석에서 에스프레소 기기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P군을 바라보면서 자문해본다. 하긴 한반도의 역사에서 계급사회가 아닌 시절이 있었던가? 고도성장의 시동을 걸었던 1960년대 후반부터 외환 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후반까지 약 30년의 시간대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시기였던 것이 아닐까? 아마도 K씨와 P군의 아버지는 찬란한 인생을 꿈꾸며 그 시기를 통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리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관성의 법칙에 이끌리듯 이전의 제자리를 찾아 돌아갔다. K씨의 생각은 얼마 전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더욱 확고해졌다.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취재한 그 기사에 따르면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40퍼센트가량이 소득 상위 10퍼센트 안에 드는 최고소득층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상위권 대학에서 "소득 하위 10퍼센트에 속하는 최저소득층 자녀의 비율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27] 교육이 사회 이동의 촉매제에서 계급 대물림의 매개체로 전환되는 이행의 과정. K씨가 보기에 P군은 이 과정의 희생양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P군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P군이 거주하는 고시원은 바로 1962년생 O씨가 소유한 빌딩의 4~5층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에서 대학 교육이 알팍한 희망을 던져주며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O씨와 같은 중상류층 건물주들이 K씨나 고시원 사장 같은 자영업자들을

그런데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헌 아파트 주고 새 아파트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자기 돈을 들여 자기 집을 고친다는 상식이 통할 수 있을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수리에 들어갈 돈을 마련해놓았는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돈을 들여 집 평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상당수는 그 돈을 들이고 공사 기간 동안 전세로 딴살림까지 차리며 이런저런 불편을 감수할 바에야 차라리 헌 아파트를 팔고 리모델링에 들어갈 돈을 보태 좀 더 쾌적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동네 이웃과 오래 살아온 정 때문에, 혹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신도시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도시들은 태생부터 서울 근교의 전형적인 베드타운이 아니던가? 서울 진입의 기회를 엿보며 계속해서 외곽순화도로 위를 움직이는 이주민들의 도시.

물론 신도시 탈출의 우선권은 2000년대 초반 이전, 그러니까 가격에 거품이 끼기 이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이라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것보다 한시라도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이 뻔하다. 이들의 급매 거래가 또다시 아파트 가격을 재조정하는 사이, 상투를 잡은 탓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남은 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의 논리와 유지보수의 미덕을 터득해야만 할 것이다."

27 진명선, "서울 연세 고려대생 35퍼센트가 '상위 10퍼센트 자녀'", 〈한겨레〉, 2012. 3. 2.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지금 정혜 학생을 낙담시키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니 오해 없었으면 한다. 그것은 분명 고무적인 생각이지만 현실 세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정혜 학생처럼 사고하는 것은 매우 건설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출판물을 보고 토론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논의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했던 토론은 끝이 있는 폐쇄형의 토론이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이 출판물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열린 토론인 것이다. 〈미디어시티서울〉 2016 오프닝 후 토론을 이어가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박해천, 『아파트 게임』, 서울: 휴머니스트, 2013, 113-116쪽.

중간책으로 내세워 갑과 을의 다단계 구조를 만들고 그 제일 밑자리에 P군 같은 청년들을 밀어 넣고 있다고나 할까? 경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 자산 보유자나 중산층의 일부는 중하위 계층에 속한 '젊은 세대'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새로운 생존 전략을 구상하게 마련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무지한 P군 같은 이들이야말로 가장 공략하기 쉬운 대상일 테니까 말이다. 이 대목에서 K씨는 P군에게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다.

아르바이트생이면서 대학생이며 채무자이면서 항구적인 소비자로 살아가야 하는 분열적인 상황. P군은 일을 마치면 싸구려 김밥을 사서 고시원으로 향할 것이다. 피곤에 찌든 그의 몸은 쓸쓸하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겠지만, 그의 가슴 속에 쌓인 많은 말은 제대로 발설되지 못한 채 발밑으로 가라앉아 흩어질 것이다. 그는 창문이 없는 1.5평짜리 쪽방에서 컴퓨터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것이며,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머릿속이 이 방의 구조와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어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는 이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180센티미터 길이의 침대 위에 몸을 눕힐 것이다. 눈을 감으면 그 안으로 방이 구겨져 들어갈 것이다.

K씨는 이런 상념에 빠져드는 것이 주제넘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하는 시민' 시절에 몸에 밴, 그의 아내 말대로 남 걱정부터 하고 보는 사치스러운 버릇을 아직 버리지 못한 탓이었다. 하긴 자신의 처지가 조선 말기의 소작농과 다를 바 없는데 누

116 아파트 게임

『그런가요』 3호
치무렝가 『크로닉』 특별호

치무렝가*

치무렝가는 〈미디어시티서울〉 2016 출판물 『그런가요』 3호를 위해 범아프리카 계간지 『크로닉』의 특별호 형식으로, 본토 아프리카와 디아스포라 아프리카의 새로운 SF 그래픽 글쓰기를 선보인다.

이 특별호는 치무렝가가 우리의 현재를 기록하고 질문하는 동시에 미래를 상상하는 언어를 생산하기 위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를 진보, 곧 시간을 거치며 나아가는 단선적인 행진으로 보는 개념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작업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시간 감각은 선천적으로 인간적이다. 모든 사람이 도달하면 "때가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편집 프로젝트 역시 "아프리카의 미래" 또는 아프로퓨처리즘의 제도적 생산에 도전한다.

대신, 우리는 '성스러운 것의 테크놀로지'에 초점을 둔다. 꿈꾸기의 테크놀로지. 서구과학이 통치하지 않는 세계, 매 순간 즉흥을 요구하는 세계(꿈에는 판에 박힌 것이 없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주는 당혹만이 존재한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끈질기게 시각화함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초인간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을 가장 잘 포용하는 매체로 만화와 그래픽 글쓰기에 접근한다.

『그런가요』 3호(2016년 8월 발행 예정)에는 하산 블라심, 피비 보스웰, 하모니 홀리데이, 니킬 싱, 마지 엘 샤피, 브리즈 요코, 네이티브 마카리 등을 비롯한 여러 필자들이 참여한다.

*치무렝가는 2002년 응토네 에자베가 설립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 매거진 발행, 출판, 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출판 편집과 전시 기획 활동을 위한 플랫폼이자 온라인 자료센터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